

- 주요 뉴스: 미국 뉴욕 연은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배경
 - 미국 재무장관, 고물가 장기화 시 양호한 노동시장 지속은 기대난
 - EU, 전기 수요 감축 의무화 및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 제한 등을 계획
 - 러시아 대통령궁,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목표 달성 시까지 지속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8월 소비자물가 둔화 예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1.1%], 달러화 약세[-0.7%], 금리 상승[+5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에너지 및 기술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강세
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둔화 등으로 2주래 최고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가능성 등이 영향
유로화가는 0.8% 상승, 엔화는 0.3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향후 경제 성장 부진 우려 등으로 4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74.3원, -7.3원) 0.5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9/12일	9/9일	전일대비			9/12일	9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10.4	4,067.4	1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36%	3.31%	5bp
	유럽	427.75	420.37	1.76%		독일	1.65%	1.70%	-4bp
	중국	휴장	3,262.1	-	CDS 5y	한국	31bp	31bp	0bp
	일본	28,542	28,215	1.16%		중국	66bp	66bp	0bp
	한국	휴장	휴장	-	위험 지표	EMBI+	-	418	-
환율	달러지수	108.29	109.00	-0.66%		VIX	23.87	22.79	4.74%
	유로화	1.0122	1.0042	0.80%		WTI유	87.78	86.79	1.14%
	엔화	142.84	142.47	-0.26%	원자재	구리	362.6	358.1	1.24%
	위안화	휴장	6.9265	-		금	1,724.5	1,716.8	0.45%
	원화	휴장	휴장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미국 뉴욕 연은,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.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배경
 - 설문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.75%를 기록하여 전월(6.2%) 대비 낮은 수준. 이는 '21년 10월 이후 최저치. 또한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'20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(3.2%→2.8%)
 - 이번 결과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.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, 6월 갤런당 5달러를 상회했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3.7달러 수준에서 유지. 이 외에 식품가격(6.6%→5.8%)과 임대비(9.9%→9.6%)의 연간 상승률 전망도 하향
 -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연준 인사들의 물가 관련 불안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. 40년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
 - 시장에서는 다음날(현지시각 기준 9/13일) 발표 예정인 8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8.1%를 나타내 전월(8.5%) 대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.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다음 주 예정된 9월 FOMC에서 여전히 0.75%p의 인상을 예상
 - 한편 일부 부정적인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. 향후 3개월 이내에 최소한의 부채비용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(10.8%→12.2%)했고, 또한 향후 1년 신용 확대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도 증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미국 재무장관, 고물가 장기화 시 양호한 노동시장 지속은 기대난
 - 옐런 장관은 향후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, 연준의 인플레이션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. 연준의 뛰어난 정책 능력이 약간의 행운과 결합되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ECB 부총재, 0.75%p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 안정이 목표
 - 데 권도스 부총재는 중앙은행의 정책 관련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. 만일 가계와 기업이 1~2년 내로 인플레이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면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

■ EU, 전기 수요 감축 의무화 및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 제한 등을 계획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EU는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전기 사용 축소에 나서도록 하고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의 급증한 이익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제안할 예정.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은 개별 사안으로 논의 중
- 한편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토르 총리는 EU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가스 가격 상한제에 회의적이라고 언급.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는 가스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

■ 러시아 대통령궁,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목표 달성 시까지 지속

-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이번 특별 군사작전은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. 또한 자포리자 원전 부근의 군대를 철수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첨언

■ 독일 경제연구소 IFO, 내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전망.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반영

- 내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대폭 하향(3.7%→0.3%). 에너지 비용 급증이 경기회복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. 연간 인플레이션 수준도 상향(6.0%→9.3%). 한편 금년 전망도 성장률은 낮추고(2.5%→1.6%)하고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(6.8%→8.1%)

■ 중국 총리, 경제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

-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정책들이 소비회복과 투자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,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. 또한 이를 통한 고용 및 물가안정을 기대하며,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완공을 서두르겠다고 부연

■ 일본은행, 코로나 팬데믹 안정기금 제공은 9월에 중단 예상. 완화기조는 유지

- 관계자들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급감하지 않았다고 설명. 이와 관련된 구체적 결정은 9/21~22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. 다만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행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1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소비자물가, 독일 8월 소비자물가 및 9월 ZEW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소비자신용 증가, 양호한 가계재정 고려 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- 블룸버그

(Consumer Credit Is Soaring in the US. So What?)

- 지난 6개월간 월평균 소비자신용이 331억달러 증가했는데, 이는 '19년(154억달러) 대비 2배 규모.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40년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영향에 의한 것이며, 가계 재정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
- 그러나 리볼빙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부채 증가세는 장기 평균으로 회귀 중.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과거와 비교 시 낮아 가계의 상환 여력도 양호한 상태.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인상 등이 잠재적 위험

■ 미국의 기업이익 감소 전망, 향후 증시의 또 다른 시험대 - WSJ

(Sliding Earnings Forecasts Pose Next Test for Markets)

- 최근 S&P500 지수는 수 일 동안 연속 상승. 다만 이러한 추세 지속 여부는 10월부터 공개될 3/4분기 기업실적에 좌우될 가능성. FactSet은 3/4분기 기업이익 전망치를 6월말 이후 5.5%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'20년 이후 최대
-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경제 여건 역시 기업이익 전망에 부정적. 많은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증가에도 기존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, 연준의 통화긴축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기업의 대응력도 결국 약화될 소지

■ 미국 실물경제 심리 개선, 경기연착륙의 신호일 가능성 - 블룸버그

(Wall Street Squirms While Main Street Gets Relief)

■ 유럽의 에너지 위기, 에너지 관련 제반 여건의 개혁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Energy crisis should spur regulatory overhaul)

■ 유로존,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정밀한 재정정책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Why EU finance ministers face a tough balancing ac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